

“영화음악 사용허락에 관한 궁금증, 시원하게 답해드립니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영화음악 사용료 징수규정과 관련한 Q&A -

※ [Version : 20120822]

내용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최종 버전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

• 연락처 : 02 2267 9983

• 이메일 : kfpa3@kfpa.net

• 홈페이지 : <http://www.kfpa.net> →[게시판]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

**“영화음악 사용허락에 관한 궁금증,
시원하게 답해드립니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영화음악 사용료 징수규정과 관련한 Q&A-

- 목 차 -

▣ 영화음악 사용료 징수에 관한 Q&A -----	1p ~ 13p
-----------------------------	----------

- 참고 자 료 -

• 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영화음악 사용료 징수규정(2012.03.15. 문화부 승인안)과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 제안안 비교 -----	14p
• 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영화음악 사용료 징수규정 : 2012.03.15. 문화부 승인안	
• 영대위 산식 계산 근거 자료 -----	16p
• 저작권법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조항 -----	18p
• 음악감독 계약서 중 영화음악대책위원회가 권고하는 ‘저작권’관련 조항 -----	19p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감독 계약서 전문 -----	20p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감독 계약서로 계약할 경우 문제점 -----	24p
• 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방송사용료 징수규정 -----	26p

영화음악 사용료 징수에 관한 Q&A

통상곡 = 기존곡 = 스코어 = 영화와는 무관하게 기존에 발표된 음악
창작곡 = 오리지널 스코어 = 음악감독이 영화를 위해 창작한 음악

Q) 영화음악 사용료를 징수하는 음저협은 어떤 단체인가?

A) 음악과 관련한 신탁단체로는 음저협(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실연(한국음악실연자연합), 음제협(한국음원제작자협회) 이렇게 3개의 신탁단체가 있다.

음저협은 작사가, 작곡가들의 음악저작물을 신탁관리하며, 저작권재산권에 대해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저작인격권은 신탁대상이 아니다.

음실연은 연주자, 가수들의 저작인접권을 신탁관리하며, 음제협은 음반/음원을 제작하는 음악제작자들의 저작인접권을 신탁관리한다. 영화의 경우, 원래의 음원, 즉 앨범상의 음원을 사용할 때에는 음실연과 음제협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음악신탁단체는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들의 음악저작물을 신탁받아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고자하는 사용자들의 요구가 있을 때 저작권자들을 대신해서 문화부가 승인한 규정에 따라 이용을 허락해 주며, 그 대가를 징수하여 신탁회원들에게 배분한다.

Q) 음저협이 영화계에 요구하는 주장은 무엇인가?

A) 음저협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과 그 대가에 대한 징수를 권리별로 나누어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복제사용대가는 영화 제작자에게, 공연사용대가는 극장에게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음저협에 신탁된 모든 음악에 대해 '유일한 법적 권리자'로서 음저협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영화음악감독이 영화제작자와의 계약하에 창작한 음악조차 음저협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2010년 10월 이후 불법적인 공연행위(=영화상영)에 대한 손해배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Q) 음저협이 영화계에 요구하는 음악사용료라는 게 어떤 것인가?

A) 음저협이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음악사용료 외에 극장에서의 공연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음저협은 그동안 영화계가 지불했던 음악사용료가 최초복제에 대한 대가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극장에서의 상영에 대한 공연허락을 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영화계가 그 대가를 납부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음저협의 주장의 근거는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할 때, 영화에 삽입된 음악이 공연된다는 것이다. 영화에 음악을 삽입하는 복제와 극장에서의 영화음악의 공연은 서로 다른 권리이며, 이에 대해 별개의 사용료를 내라는 것이다.

즉 음저협의 음악사용료는 '복제사용료 + 공연사용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화계는 기존의 관행과 계약상 영화제작자가 음저협에 이용허락을 신청할 때, 복제와 극장에서의 상영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용허락을 받았다. 복제사용에 대한 사용허락은 영화가 극장에서의 상영을 당연 전제 한다는 점에서 그 개념상 나누어 대가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즉 영화계의 음악사용료는 '복제(상영)사용료'를 의미한다.

Q) 음저협의 음악사용료 징수와 음저협이 유일한 법적권리자라는 주장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A) 영화를 제작할 때 기존음악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예전에는 저작권자(작사·작곡자)와 직접 협의해서 사용허락을 구하고 동시에 사용대가도 정했다.

그런데, 현재 음저협의 주장은 그 협의를 음저협과 하고, 가격도 음저협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저협의 주장에 따르면, 기존에 영화계가 저작권자라고 생각하고 있던 저작권자(작사·작곡자)는 사실상 '무권리자'로, 영화계가 무권리자와 계약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영화계는 기존음악만을 음저협의 신탁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음저협은 음악감독에 의해 창작된 음악도 음저협에 신탁된 저작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음저협의 주장은 음악감독조차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음악감독과의 저작권 관련 계약 또한 무효라는 것이다.

Q) 음저협이 유일한 법적권리자라는 주장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

A) 이 문제는 기존곡과 창작곡을 나누어서 생각해야 한다.

음저협의 신탁계약규정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재산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신탁하고 이를 신탁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이 행사할 수 없다.

기존곡의 경우, 음저협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과거 영화계가 사용허락을 구한 방법, 즉 원래의 개별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정한 것은 음저협이 권리행사를 역으로 개별 저작권자에 규정에 의해 재위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음저협이 음저협과만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 해석을 주장하는 현재는 음저협이 협의의 당사자이며, 개별 저작권자는 무권리자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창작곡의 경우, 음저협의 주장은 명백한 오류가 있다. 이 경우 음저협의 신탁규정보다 저작권법상의 영상물특례조항이 우선한다. 영화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음악감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음저협의 신탁약관에 우선하는 것이다. 법률이 하위의 규정보다 우선하는 것은 당연하다. 상식적으로 창작곡은 영화 제작 이전에는 만들어지지도 않으며, 개봉 이전에는 발표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신탁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넌센스에 불과하다.

Q) 2012년 3월15일 문화부가 새로운 징수규정을 승인한 전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A) 2012년 3월 15일 이전 징수규정은 영화관 등에서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영상물에 이용되는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사용자(영화제작자)와 원래의 저작권자가 협의하여 복제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공연사용료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개정 징수규정은 “별도의 특약”이란 영상물특례조항상의 규정을 준용하여, 복제사용료와 공연사용료를 구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별도의 특약이란, 영화제작자가 복제사용료와 공연사용료를 구분하여 납부할 것인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34조1항’에 따르면, ‘별도의 특약 없이 복제·배포·공연 등을 일괄적으로 허락할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곡당 사용료를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추가로 공연료는 징수하지 않고’,

‘제34조2항’에서 ‘복제와 공연을 별도 허락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i) 그 복제사용료는 영상물의 성격(일반 상업영화, 순제작비 4억 원 미만의 저예산 독립영화, 영화제 출품) 및 사용량(5초 이상 1분 미만, 1분 이상 5분 미만, 5분 이상)에 따라 4만 원부터 300만 원으로 나누어 정하고,’

‘제34조3항’에서 ‘(ii) 공연사용료는 영화상영이 종료된 후 영화 매출액에 곡당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여 영화제작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4조’의 ‘비고1’에서는 영화제작자가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극장이 대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연권 특약 유무	사용료의 내용	관련 조항
종전 징수규정	공연권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사용자와 협의한 복제사용료 징수	제34조 제1항
	공연권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규정 없음	-
개정 징수규정	공연권에 대한 특약이 없는 일괄 허락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한 사용료 징수	제34조 제1항
		추가 공연료 징수하지 않음	
	공연권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	정액의 복제사용료 징수	제34조 제2항
		매출액에 비례한 공연료 징수	제34조 제3항

Q) 2012년 3월15일 문화부의 승인안이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A) 2012년 3월15일 이후 음저협에 기존곡의 음악사용 허락 신청서를 제출한 작품부터 적용 된다. 3월14일 이전에 음저협에 기존곡의 음악사용 허락 신청서를 제출한 작품들은 새로운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봉이나 상영 여부와는 무관하다.

Q) 영화는 당연히 극장에서 상영하기 위해 만드는 것인데, 영화제작을 위한 복제와 영화상영시의 공연이란 개념을 분리할 수 있나?

A) 음저협이 음악 이용을 허락한다고 하는 것은 '복제, 배포, 공연, 전송'을 할 권리를 허락한다고 하는 것이다. 음저협은 이 각각의 권리마다 이용허락을 하고, 이용허락을 한 각각의 권리마다 대가를 받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화계는 입장은 이런 음저협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

영화는 극장 상영을 당연히 전제하기 때문에 영화에 음악이 삽입(복제)된다는 것은 극장에서 영화가 상영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화에 음악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복제와 상영을 동시에 '일괄 허락'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기존의 규정과 관행은 영화계의 입장과 동일하다.

Q) 그렇다면 음저협이 주장하는 이용허락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는 무엇인가?

A) 음저협이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최초 복제, 즉, 1차 복제란 극장에 상영할 것을 목적으로 영화(필름 또는 디지털파일)에 음악을 삽입하는 것, 공연은 음악이 삽입된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되는 것

√ 2차 복제는 극장 상영 외에 비디오, DVD, 블루레이 제작이나 디지털 파일 변환을 구현할 때에 요구되는 복제행위를 의미하는 것

결과적으로 음저협은 복제, 배포, 공연, 전송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계기마다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Q) 하지만 저작권법상 영상제작자를 보호하는 영상물특례조항이 있다.

A) 통상 다수가 작업하는 저작물의 경우 참여자의 기여도에 따라 권리가 분할되며, 참여하는 모든 저작권자가 각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화 또는 영상저작물의 경우, 제작에 참여하거나 포함되는 저작권자나 저작물을 개별적으로 분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권리 행사시에 참여한 모든 이에 게 허락을 구하기도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에 '영상저작물특례조항', 즉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영상저작물의 경우, 제작자가 권리행사를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Q) 그렇다면 영상물특례조항에 따라 영상제작자가 영화와 관련한 개별 권리자의 권리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음악의 경우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A) 영상물특례조항에는 기존 저작물(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 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상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100조 2항) 기존에 창작된 영화와는 별개인 저작물을 영화에 이용할 경우, 해당 저작물의 권리행사를 영화제작자가 양도받는다고 추정하면 기존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음저협에 신탁된 기존곡이 해당된다.

이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조항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신탁제도이다. 대체로 소설, 각본, 미술저작물의 경우 개인이 저작권자이며 동시에 개인이 저작재산권을 행사한다. 이 경우 영화제작자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계약조건이 맞지 않으면 계약 자체를 포기하고 다른 대체 저작물을 찾으면 된다. 그러나 기존음악과 같은 음악저작물은 독점적인 지위를 갖는 신탁단체가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계약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체저작물을 찾을 수 없다.

음저협은 2010년 10월 임의로 '1차 복제에 관해서만 허락한다.'고 이용허락계약서를 변경했다. 음저협 표현에 따르면 '1차 복제에 한정한다는' 특약을 건 것이다. 동시에 그 외 다른 이용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화계는 징수규정 변경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문화부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과, '변경한 사실과 그 내용에 대해 영화계에 제대로 공지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는 음저협이 신탁단체로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Q) 영화에 참여하는 미술, 분장 등 각 분야의 저작권자들이 개별적으로 각자의 권리를 음악처럼 주장한다면 어떻게 영화를 만들 수 있나?

A) 영화는 미술, 촬영, 음악 등 모두가 모여서 짜여진 하나의 틀이다. 그런데 음저협의 주장대로라면, 영화라는 작품 자체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논리다. 우리 저작권법의 영상물특례조항의 주요 내용은 '영화제작에 협력할 것에 약정한 자는 개별적인 권리 행사를 제한하고, 제작자가 대표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영상물특례조항에 따라 미술, 분장 등은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Q) 문화부는 어떤 입장인가?

A) 문화부의 입장은 3월15일 징수규정 개정 당시 설명회에 근거할 경우, 영화계도 음저협도 '둘 다 맞다'는 입장이다.

영화계 주장에 따라 일괄 허락을 구한다면 징수규정 34조 1항에 따르고, 음저협 주장대로 분리해서 사용허락을 구한다면 징수규정 34조2항과 3항에 따르라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쪽을 선택할 지는 제작자의 선택에 맡겨뒀다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34조 3항의 단서조항에서 영화제작자가 공연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영화상영관에 납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조항이다. 기본적으로 영화제작자가 이용허락을 신청하는데, 극장과 제작자간 계약(배급계약)과는 무관하게 상영관에 연대보증책임을 지운 것으로, 사실상 상영관을 대신해서 영화제작자가 대리계약한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공연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음저협이 임의로 해석할 수도 있다.

Q) 음저협은 문화부 입장처럼 제작자가 음악 이용허락을 신청할 때 34조 1항으로 하든, 34조 2항으로 하든 제작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는가?

A) 영화 제작자가 34조 1항 '별도의 공연료 징수 없이 곡당 사용료를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에 따라 복제·배포·공연 등에 관해 일괄하여 이용허락을 신청할 경우, 현실은 음저협과 영화제작자가 '협의'할 수 없다. 음저협이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과 이용허락범위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음저협을 제외하고 개별 권리자들과 개별적으로 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음저협측의 제시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음악을 사용할 수가 없다.

독점 신탁단체가 가격과 이용허락범위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은 징수규정을 문화부가 승인하도록 하는 저작권법상의 신탁단체 운용에 관한 취지와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영화제작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는 문화부의 주장은 구조적으로 음저협이 영화제작자의 선택과 사적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다.

Q) 그 동안 영화계가 단체를 구성해 음저협과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이 단체는 어떤 단체인가?

A) 음저협의 이용허락과 음악사용료 징수 등 영화음악저작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영화계의 통일적인 대응을 위해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이하 영대위)를 구성했다. 영화계 내 투자·제작·배급·상영 전 부문에 걸친 주요 플레이어(기업과 단체)들이 공동으로 구성하였다.

영대위는 2011년 8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음저협과의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영화계 공동의 대응방안을 조직해왔다. 현재 5개 기업(CJ E&M, CJ CGV, 롯데시네마/롯데엔터테인먼트, 메가박스, N.E.W.), 6개의 협회(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상영관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CPN(Cinema Contents Provider Network))가 참가하고 있다.

Q) 그 동안 영대위와 음저협간 협의 경과를 설명해 줄 수 있는가?

A) 그동안의 경과는 크게 협의 과정의 내용에 따라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2010년 10월 음저협의 일방적인 사용허락계약서 변경 이후 1차 협상이 결렬된 2011년 11월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음저협의 최초 일방적인 주장과 요구에 대해 영화계의 공동대응방안을 정리하고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2011년 11월말 협상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저협이 롯데시네마를 형사 고발하면서 영화계와 음저협의 협상이 1차 중단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 15일 문화부의 징수규정 승인까지의 시기이다. 영화계와 음저협간의 협상 결렬에 대해 문화부가 중재를 자청하면서 개입하였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음저협측이 일방적으로 징수규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를 문화부가 직권으로 변경하여 승인하였다.

세 번째 시기는 2012년 3월 15일 이후 현재까지이다. 문화부가 직권 승인한 징수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음저협과 징수규정 개정을 위한 2차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현재 과거 배상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된 상황이다.

음저협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화계가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하다.

음저협이 독점적인 신탁단체이며 동시에 영화가 기존음악을 사용해야 하는 한, 음저협에 의해 각종 소송이 난무하고 또한 이를 영화계내의 개별 기업이나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협상을 통한 타결이기 때문이다.

Q) 그럼에도 음저협과의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무엇인가?

A) 음저협과 영대위의 입장간의 차이를 요약하면, 납부주체와 이용허락 범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2010년 10월 이후 영화에 사용된 음악에 대해 공연사용료를 배상하라”는 음저협의 요구 때문이었다.

영화계는 이런 음저협의 요구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것은 영화계 전체가 범법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Q) 구체적으로 음저협의 주장에 대한 영대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A) 영대위의 주장은 간단하다.

‘복제, 배포, 공연에 대해 일괄적으로 이용허락이 이루어져야 하며, 제작단계에서 음악사용료를 일괄 납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영대위는 음저협이 주장하는 음악저작물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음저협은 ‘이 각각의 개별 권리마다 사용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고, 영대위는 ‘그 각각의 개별 권리는 인정하되, 이용허락과 대가의 지불은 일괄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일괄 처리를 주장하는 영화계의 주장은 현행법상으로는나 국제법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Q) 왜 공연사용료를 극장이 아니라 제작사가 내야 하는가?

A)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저작권법상 극장에서의 상영이 공연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법적 정의로서 공연의 하위 개념으로 상영이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공연의 주체가 극장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도 없다. 이에 대해 협상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제작자가 음악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유통(배포)의 단계마다 별도의 이용허락과 그 대가의 납부를 요구하는 음저협의 주장은 영화라는 저작물의 유통활성화를 충분히 저해하기 때문이다. 영화는 배급시에 저작권 권리관계에 대한 해결을 전제로 계약하는데, 음저협의 주장은 현재 영화산업내 유통계약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특히 음저협은 공연사용료를 공연의 주체가 되는 극장이 매출 대비 일정 비율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영화제작과 유통에 참여하는 그 어떤 참여자들보다 음악저작권자가 우위에 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저작권적 측면에서도, 산업적 측면에서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현실적으로 영화산업구조 내에서 음악사용료를 안정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제작 단계에서 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Q) 음악사용료를 일괄 납부하기 위해 영대위가 음저협에 제안한 음악사용료는 얼마인가?

A) 영대위가 제안한 음악사용료의 일괄납부를 위한 계산식은,

“곡당 300만원 + 기준단가 x 개봉첫날 스크린 수”이다.

2011년도 평균 개봉스크린수(326개)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곡당 음악사용료는 기준단가별로 다음과 같다.

- ① 3,000원인 경우, 곡당 3,978,000원 (최초 제안)
- ② 10,000원인 경우, 곡당 6,260,000원
- ③ 12,000원인 경우, 곡당 6,912,000원

그리고 순제작비 10억 미만 영화의 경우, 위의 방식으로 계산되는 음악사용료의 1/10을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제안하였다.

Q) 기존에 한국영화가 지불한 음악사용료는 어느 정도였나?

A)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2011년 한국영화 146편 전체의 음악관련 총 비용은 39억이며, 이중 기존곡에 대한 저작권료는 대략 10억원, 음악감독비용은 29억원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순제작비 10억 이상의 영화의 경우, 편당 평균 음악관련 총비용은 58,000,000원, 기존곡에 대한 음악저작권료는 15,000,000원, 음악감독비용은 43,000,000원이었다. 이 경우 편당 평균 2.5곡을 사용하였으므로 곡당 단가는 평균 6,000,000원이다.

영화계의 조사와는 달리 음저협은 2011년도 음악사용료 징수총액이 2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제시하였으며, 이는 영화계가 지불한 10억 원과 비교할 때 대략 8억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이다.

Q) 방송은 음악사용료를 어떻게 납부하고 있나?

A) 방송의 경우, 징수규정상 매출의 일정 비율(대략 0.8% 정도)을 음저협에 사용대가로 지불하고 있다. 영화와 비교하자면, 영화는 사용곡별로 상영 이전에 사용허락을 받지만 방송은 사용곡수와는 무관하게 사후정산한다 점이 가장 큰 차이이다. 영화의 경우 개별 음악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권 사용대가를 명확히 분배받을 수 있지만, 방송의 경우 사용곡 내역이 사실상 확인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명확한 분배가 불가능하다. 또한 방송의 경우, 음악저작물이 많이 이용될수록 개별 저작물의 단가가 낮아지는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영화의 경우 많이 이용될수록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므로 개별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지켜줄 수 있다.

Q) 다른 나라에서는 음악사용료를 어떻게 납부하고 있나?

A) 먼저, 공연사용료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프랑스, 영국 등은 음악사용의 대가로 극장이 대략 극장 매출 1%를 납부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극장을 대상으로 공연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 그리고 일본은 극장이 포함된 제작 주체가 일괄해서 지불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일반화될 수 없다. 무엇보다 각 국가별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상이한 형태로 저작권법을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영화산업의 구조 자체가 차별적이다. 전체 영화산업 내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총당 또는 지원하는 유럽의 경우와 국가에 의한 지원이 전무한 미국의 경우가 극단적으로 대립한다. 이러한 국가별 법체계와 산업체계의 차이를 무시하고 극장이 공연사용료를 납부하는가라는 단 하나의 기준만으로 사례를 일반화할 수 없다.

Q) 현 상황에서 음악감독과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음악감독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음저협이 제시하는 계약서를 사용하면 안 된다.

영대위는 음악감독과의 계약시 필요조건 수준의 저작권관련 사항을 제안한 바 있다.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것이므로 영대위의 권고안으로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영대위는 추후 표준계약서 양식을 제안할 것이다.

Q) 음저협 소속이 아닌 음악감독과의 작업 후, 해당 음악감독이 음저협에 가입하면 작업한 영화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A) 음저협 가입 이전의 계약이 음저협의 신탁규정에 우선한다.

Q) 현 상황에서 기존곡을 사용한 작품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어쩔 수 없이 기존곡을 사용하는 경우, 영대위는 현행 징수규정상의 34조 1항으로 사용허락신청을 할 것을 권고한다. 추후 극장을 포함한 유통단계별로 음저협이 제기하는 분쟁에서 유리한 법률적 지위를 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음저협측이 해당 조항에 대한 이용허락대가(곡당 700만원 이상)를 임의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분명히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음저협의 일방적인 금액산정과 이용허락범위지정은 우월적 지위남용이며, 추후 징수규정 개정의 근거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영대위에 문의하기 바란다.

Q) 독립영화가 음악 사용허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현재의 징수규정 34조 1항의 경우, 감경기준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상업영화와 동일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다만 순제작비 4억 미만의 영화의 경우, 34조 2항에서 일반상업영화에 비해 감경된 복제사용료를 제시되고 있으며, 평균 극장 매출보다 4억 미만 영화의 평균극장매출이 작으므로 34조 2항과 3항을 근거로 사용허락을 신청하는 것이 금액상으로는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쪽을 선택하라는 권고보다는 제작자의 선택이 우선적이라 할 것이다.

다만 사용허락 이후 음저협측에 대해 문제제기를 권고하며, 또한 극장측의 상영계약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영대위에 문의하기 바란다.

Q)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남아 있는가? 영대위의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A) 현재까지 음저협과의 분쟁은 극장에서의 공연사용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추후 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즉자적인 협상을 통한 봉합이 아니라 법률적, 제도적 해결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영화계의 공통된 대응이 필수적이다.

우선 현재의 음저협 징수규정을 시급하게 재개정해야 한다. 영대위는 문화부의 직권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징수규정은 끊임없이 분쟁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급한 개정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영대위는 현재의 징수규정 개정 이전에 어쩔 수 없이 음저협 신탁곡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영화계 내부 전체적인 공유와 공통된 행보를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특히 영대위는 음저협측의 무분별한 소송제기에 대해 법률적, 제도적인 대응 추진할 것이며 동시에 개별 소송당사자들에게 법률적인 지원을 진행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음악저작권자(음저협이 아니라)와 함께하는 이익공유전략을 영화제작 시스템내에 제안, 도입함과 동시에 이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저작권법의 개정과 신탁단체운영방안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참고 자 료

- 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영화음악 사용료 징수규정(2012.03.15. 문화부 승인안)과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 제안안 비교

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영화음악 사용료 징수규정 (2012.03.15. 문화부 승인안)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 제안안																
<p>제34조(영화 등 영상물의 사용료) ①영화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별도의 특약이 없이 복제·배포·공연 등을 일괄적으로 허락할 경우 곡당 사용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p>	<p>제34조(영화 등 영상물의 사용료) ①영화에 기존 음악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영화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복제·배포·공연 등을 일괄적으로 허락할 경우 곡당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 300만원+3,000원 x 개봉첫날 스크린 수 "</p> <p>비고1) 개봉 첫날 스크린 수는 1일 6회 상영관을 1개로 하며, 미달 시 별도 협의 한다.</p> <p>비고2) 순제작비 10억 미만의 작품은 상기 곡당 저작권료의 1/10을 적용 한다.</p>																
<p>②영화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복제와 공연 등을 별도로 허락하기로 특약이 있는 경우 곡당 복제사용료는 다음과 같다.</p> <table><tr><td>사용량에 따른 구분</td><td>5초 이상 1분 미만</td><td>1분 이상 5분 미만</td><td>5분 이상</td></tr><tr><td>일반 상업영화</td><td>100만원</td><td>20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저예산 독립영화 (순제작비 4억원 미만)</td><td>20만원</td><td>40만원</td><td>60만원</td></tr><tr><td>영화제 출품</td><td>4만원</td><td>8만원</td><td>12만원</td></tr></table>	사용량에 따른 구분	5초 이상 1분 미만	1분 이상 5분 미만	5분 이상	일반 상업영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저예산 독립영화 (순제작비 4억원 미만)	20만원	40만원	60만원	영화제 출품	4만원	8만원	12만원	<p>② <삭제></p>
사용량에 따른 구분	5초 이상 1분 미만	1분 이상 5분 미만	5분 이상														
일반 상업영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저예산 독립영화 (순제작비 4억원 미만)	20만원	40만원	60만원														
영화제 출품	4만원	8만원	12만원														
<p>③제2항의 특약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복제</p>	<p>③ <삭제></p>																

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영화음악 사용료 징수규정 (2012.03.15. 문화부 승인안)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 제안안								
<p>사용료와 별도로 영화상영이 종료된 후에 협회가 관리하는 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곡당 공연사용료를 정산하여 납부한다.</p> <p>“ 해당영화 관람객수 x 평균관람료 x 0.97(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가금 공제) x 음악사용료율 ”</p> <p>비고1)영화상영관이 공연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주체인 ‘사용자’는 영화제작자로 하고, 영화제작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영화상영관에게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p> <p>비고2)‘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가금’ 비율의 변동에 따라 위 부가금 공제 비율을 조정한다.</p> <p>비고3)‘음악사용료율’이란 음악 1곡의 기여도로써 사용된 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한다.</p> <table><tr><td>사용량</td><td>5초 이상 1분 미만</td><td>1분 이상 5분 미만</td><td>5분 이상</td></tr><tr><td>음악 사용료율</td><td>0.06%</td><td>0.1%</td><td>0.2%</td></tr></table>	사용량	5초 이상 1분 미만	1분 이상 5분 미만	5분 이상	음악 사용료율	0.06%	0.1%	0.2%	
사용량	5초 이상 1분 미만	1분 이상 5분 미만	5분 이상						
음악 사용료율	0.06%	0.1%	0.2%						

• 영대위 산식 계산 근거 자료 [영대위 산식 : “300만원+ 곡당 기준 단가 3,000원 x 개봉첫날 스크린 수”]

2011년도 기준

구분	단위	
극장수	EA	292
스크린수	EA	1,982
극장당 평균스크린수	EA	6.79
중좌석수	EA	341,905
스크린당 평균좌석수	EA	173

		중편수 및 중액 기준			편당 평균 기준			
		전체	순제 10억 이상	순제 10억 미만	전체	순제 10억 이상	순제 10억 미만	
한국영화 개봉작	EA	145	64	82				
총관람객수	명	77,942,348	76,498,927	1,443,421	533,852	1,195,296	17,603	
극장 총매출액(전산망)	원	577,708,052,800						
평균관람요금	원	7,737						2011년도 결산 (영진위)
극장 총매출액(음악실태조사)	원	576,916,266,300	566,247,268,200	10,668,998,100	3,951,481,276	8,847,613,566	130,109,733	차액은 조사방법상 문제 (0.137% 오차)
개봉 스크린수	EA	22,787	20,876	1,911	156.08	326.19	29.86	
순제작비	원	217,367,884,457	203,660,061,467	13,707,822,990	1,488,821,126	3,182,188,460	167,168,573	
마케팅비	원	101,397,454,374	96,724,979,431	4,672,474,943	694,503,112	1,511,327,804	56,981,402	
총제작비	원	318,765,338,831	300,385,040,898	18,380,297,933	2,183,324,239	4,693,516,264	224,149,975	
음악감독료	원	2,949,015,029	2,754,476,190	194,538,839	20,198,733	43,038,690	2,372,425	
음악저작권료	원	988,157,660	939,506,375	48,651,285	6,768,203	14,679,727	593,306	
음악비용 합계	원	3,937,172,689	3,693,982,565	243,190,124	26,966,936	57,718,478	2,965,733	
순제작비 대비 음악감독료 비중	%	1.357%	1.352%	1.419%				
순제작비 대비 음악저작권료 비중	%	0.455%	0.461%	0.355%				
순제작비 대비 음악비용 비중	%	1.811%	1.814%	1.774%				
총제작비 대비 음악감독료 비중	%	0.925%	0.917%	1.058%				
총제작비 대비 음악저작권료 비중	%	0.310%	0.313%	0.265%				
총제작비 대비 음악비용 비중	%	1.235%	1.230%	1.323%				
사용곡수(기존곡+참작곡)	EA	3,081	1,786	1,295	21.103	27.906	15.793	
사용곡수(기존곡)	EA	419	159	260	2.870	2.484	2.171	

		총편수 및 총액 기준			편당 평균 기준			
		전체	순제 10억 이상	순제 10억 미만	전체	순제 10억 이상	순제 10억 미만	
		총편수 및 총액 기준			편당 평균 기준			
		전체	순제 10억 이상	순제 10억 미만	전체	순제 10억 이상	순제 10억 미만	
영대위 : < 스크린당 곡단가 >	100 원	360,780,991	349,444,597	11,336,394	5,460,072	138,249		전곡대상 논리모형 (0.3%/97원)
□스크린당 곡단가 산출 : 매출과 연동	200 원	366,045,007	354,630,979	11,414,028	5,541,109	139,195		전곡대상 논리모형 (0.5%/194원)
	500 원	381,837,054	370,190,122	11,646,931	5,784,221	142,036		
* 스크린당 곡단가 = 곡당 스크린별 매출기준금액	1000 원	408,157,132	396,122,029	12,035,103	6,189,407	146,770		
* 곡당 음악사용요금	1500 원	434,477,210	422,053,935	12,423,275	6,594,593	151,503		
** 곡당 스크린별 매출기준금액=스크린 당 매출	1750 원	447,637,249	435,019,888	12,617,361	6,797,186	153,870		
역 / 사용곡수	2000 원	460,797,288	447,985,841	12,811,447	6,999,779	156,237		
** 곡당 음악사용요금=음악사용요금 / 사용곡수	2500 원	487,117,366	473,917,747	13,199,619	7,404,965	160,971		
	3000 원	513,437,444	499,849,654	13,587,791	7,810,151	165,705		영대위 제안안
- 매출을 근거한 음저렴 요금 0.5%일 때 곡단가	4000 원	566,077,600	551,713,466	14,364,134	8,620,523	175,172		
기준금액은 1,750원으로 계산 됨	5000 원	618,717,757	603,577,279	15,140,478	9,430,895	184,640		
- 영대위 안 3,000원은 매출 근거한 사용요금으로	6000 원	671,357,913	655,441,091	15,916,822	10,241,267	194,108		
역산하면 0.85%에 해당 (현재 방송 적용 음악사용	7000 원	723,998,069	707,304,904	16,693,166	11,051,639	203,575		
요금 수준임)	8000 원	776,638,225	759,168,716	17,469,509	11,862,011	213,043		
	9000 원	829,278,382	811,032,529	18,245,853	12,672,383	222,510		
	10000 원	881,918,538	862,896,341	19,022,197	13,482,755	231,978		
	11000 원	934,558,694	914,760,154	19,798,541	14,293,127	241,446		
	12000 원	987,198,850	966,623,966	20,574,884	15,103,499	250,913		
	13000 원	1,039,839,007	1,018,487,779	21,351,228	15,913,872	260,381		기존곡대상 논리모형(0.3%/13102원)
	14000 원	1,092,479,163	1,070,351,591	22,127,572	16,724,244	269,848		
	15000 원	1,145,119,319	1,122,215,404	22,903,916	17,534,616	279,316		
	16000 원	1,197,759,475	1,174,079,216	23,680,259	18,344,988	288,784		
	17000 원	1,250,399,632	1,225,943,029	24,456,603	19,155,360	298,251		
	18000 원	1,303,039,788	1,277,806,841	25,232,947	19,965,732	307,719		
	19000 원	1,355,679,944	1,329,670,654	26,009,291	20,776,104	317,186		
	20000 원	1,408,320,100	1,381,534,466	26,785,634	21,586,476	326,654		
	21000 원	1,460,960,257	1,433,398,279	27,561,978	22,396,848	336,122		기존곡대상 논리모형(0.5%/21836원)
	22000 원	1,513,600,413	1,485,262,091	28,338,322	23,207,220	345,589		
	23000 원	1,566,240,569	1,537,125,904	29,114,666	24,017,592	355,057		
	24000 원	1,618,880,725	1,588,989,716	29,891,009	24,827,964	364,525		
	25000 원	1,671,520,882	1,640,853,529	30,667,353	25,638,336	373,992		
	26000 원	1,724,161,038	1,692,717,341	31,443,697	26,448,708	383,460		
	27000 원	1,776,801,194	1,744,581,154	32,220,041	27,259,081	392,927		
	28000 원	1,829,441,350	1,796,444,966	32,996,384	28,069,453	402,395		
	29000 원	1,882,081,507	1,848,308,779	33,772,728	28,879,825	411,863		
	30000 원	1,934,721,663	1,900,172,591	34,549,072	29,690,197	421,330		

• 저작권법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조항

<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①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 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101조(영상제작자의 권리) ① 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음악감독 계약서 중 영화음악대책위원회가 권고하는 '저작권'관련 조항

(※ 저작권양도와 이용허락 중 택 1)

(※ 음악감독과 계약서 작성 시 음악감독이 해외의 공연권을 요청할 경우 "단서 조항"포함)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관련 조문>

1. **(저작권 양도의 경우)** '음악감독'이 본 계약에 따라 창작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은 '제작사'에게 귀속된다. '제작사'가 본 계약에 따라 '음악감독'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금'은 저작권 양도대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제작사'는 위 저작권 양도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1. **(이용 허락의 경우)** '음악감독'이 본 계약에 따라 창작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음악감독'에게 귀속된다. '음악감독'은 국내외에 '제작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한 자가 음악저작물을 '본건 영화'에 삽입하고 '본건 영화'를 상영하거나 그 밖의 다양한 방식으로 유통시키는 것(인터넷, 지상파, IPTV 등을 통한 영화의 송신, VOD 서비스의 제공, DVD 제작 및 배포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을 허락하며, 이를 위한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작사'가 본 계약에 따라 '음악감독'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금'은 본건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제작사'는 별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단, 해외지역에서 공연사용료 등을 '갑'(제작사 또는 투자사)이 아닌 제3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을(음악감독)'이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저작인격권 관련 조문>

1. '음악감독'은 영화의 특성상 '제작사'가 음악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영화 내에서 본건 음악저작물이 사용되는 방식이나 삽입되는 장면과 관련하여 저작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문제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감독 계약서 전문

<음악감독 계약서>

_____ (제작투자사, 이하 '갑')과 _____ (제작사, 이하 '을')과
_____ (음악감독, 이하 '병')은 아래와 같이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투자하고 '을' 제작하는 영화(제3조 제1항에 기재된 영화, 이하 '본건영화')에 대하여 '병'이 음악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갑', '을', '병' 3자 간의 권리와 의무, 수익배분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체결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의 정의규정에 따른다.

1. 음반 : 음(음성·음향 등을 의미함)이 고정된 유형물로서, 재생이 가능한 CD, LP, MC, MD 이외의 Multimedia 매체 관련 CDV, CD-ROM, CD-I, CD-Plus, DVD 등의 매체나 전자장치, 스마트폰 등에서 재생될 수 있는 일체의 매체로서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에 알려질 모든 매체를 말한다.
2. 디지털 음원 :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 휴대용 통신기기 등 네트워크 상에서의 무형의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 디지털 음원파일의 다운로드, 모바일 통신기기를 통한 음원전송 서비스, 위성방송과 케이블방송 및 기타 방송매체를 통한 음원서비스 등을 포함한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복제 및 전송의 단계를 거치는 모든 디지털매체로서,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에 알려질 모든 매체를 말한다.
3. OST :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riginal Sound Track)으로 영화 속에 삽입되거나 혹은 삽입되지 않지만 '본건영화'를 위해 제작 또는 사용되는 음악저작물이 수록된 음반을 말한다.
4. Master 음반 : 음반의 대량생산과 복제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Original(원형, 원작) 녹음물을 말한다.
5. 그 외 본 계약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정의가 필요한 사항은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의 해석, 거래관행, 본 계약 체결당시의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다.

제3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에 의해 '병'이 음악감독으로서 용역을 수행하는 본건영화는 다음과 같다.

1. 영화제목 :
2. 제작형식 :
3. 감독 :
4. 제작 :
5. 제작투자 :

제4조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 등)

- ① '을'은 '병'에게 '병'의 음악감독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보수로 금 _____원(부가세 별도)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계약금 : 금 _____원 (부가세 별도)
 지급일 ____년 ____월 ____일(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일 이내)
 (주의사항 :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 잔금 : 금 _____원 (부가세 별도)
 지급일 ____년 ____월 ____일(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일 이내)
 (주의사항 : 잔금 지급일은 A프린트 제작완료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지급계좌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음악저작물을 '본건영화'의 제작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을'이 '갑'과 '병'의 서면합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음악을 사용하여 타인의 저작권, 명예, 프라이버시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을'에게 있다. 이러한 사실이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갑'과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병'이 창작하거나 '병'의 지시나 감독을 통해 '본건영화'를 위해 창작된 음악저작물
 2. '갑', '을', '병'이 '본건영화'의 제작에 사용하기로 합의한 기존의 음악저작물
- ③ '갑' 또는 '을'은 '병'에게,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나 작업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병'이 음악감독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병'의 권리와 의무 등)

- ① '병'은 '본건영화'의 음악감독으로서 본건영화의 제작에 사용되거나 본건영화의 OST에 수록될 음악저작물의 프로듀싱·편곡·창작·창작지시 및 감독, Master음반의 제작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병'은 사운드 믹싱에 적합한 형태로 Master음반을 제작하여 '본건영화'의 개봉일 기준 []주 전까지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병'은 업무수행에 있어 '을'이 제시한 기획의도와 방향성에 대한 요구를 수용한다.
- ③ '병'은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해 '갑', '을'과의 협의하에 정한 제작일정표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다.
- ④ '병'의 용역제공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A프린트 제작완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 또는 '을'은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에 의해 용역제공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보수를 지급하며 '병'의 귀책사유에 의해 용역제공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추가보수의 구체적인 금액은 '갑', '을', '병'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 ⑤ '병'은 본 계약에 의해 제공한 용역이 타인의 저작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병'이 부담하고 '갑'과

~

‘을’을 면책시켜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해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갑’ 또는 ‘을’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병’은 ‘갑’ 또는 ‘을’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 (저작권의 귀속)

‘본건영화’에 사용되거나 ‘OST’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저작권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포함)은 각 음악저작물의 해당 저작자에게 귀속되고, 제4조 제2항 1호의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은 ‘병’에게 귀속된다.

제7조 (저작물 및 저작물의 2차적 이용)

- ① ‘병’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제공한 용역결과물(창작곡, 편곡음악, Master음반 등)에 대하여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가지는 경우, ‘갑’ 또는 ‘을’에게 그 용역결과물이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본건영화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극장에서 상영되거나 재상영되는 경우
 2. TV(지상파TV, 케이블TV, IPTV 등 포함) 또는 위성방송을 통해 방영되는 경우
 3. 본건영화가 비디오테이프, DVD, VCD, 뮤직비디오&DVD(‘본건영화’의 영상클립과 결합한 형태에 한함), 스틸, 홍보사진, 도서출판, 캐릭터, 속편 저작권, 수출 등을 포함하여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매체 등에 삽입되어 사용되는 경우
- ② 위 1항 각 호의 사용으로 인해 공연사용료, 방송사용료, 복제사용료 등의 저작재산권료가 발생하면 그 저작재산권료는 ‘병’에게 귀속되며 ‘갑’ 또는 ‘을’은 ‘병’에게 그 권리의 포기 또는 이전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갑’, ‘을’, ‘병’이 협의하여 수익배분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다.
- ③ 위 1항에서 사용을 승인한 권리를 제외하고 본건영화의 사용과 결합되지 않은 형태로 해당 용역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는 ‘병’에게 있다. 단, 본건영화에 삽입되거나, OST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의 저작인접권과 관련한 모든 판권(OST 음반 및 디지털 음원 등)의 관리 및 운용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갑’ 또는 ‘을’이 담당하기로 하고 ‘병’은 수익을 배분받기로 한다.
- ④ ‘갑’ 또는 ‘을’은 ‘병’에게 제14조 제12항 2호의 음악저작물에 대해 저작물의 사용 승인이나 저작물의 2차적 이용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책임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 (권리의무 양도금지)

1. ‘갑’, ‘을’, ‘병’은 원칙적으로 3자 모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계약서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 하도급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병’이 질병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갑’ 또는 ‘을’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존속되는 법인에게, ‘갑’ 또는 ‘을’이 둘 이상의 법인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분할법인에게 본 계약상의 제반 권리, 의무 및 계약상 지위가 승계된다.

제9조 (비밀유지의 의무)

‘갑’, ‘을’, ‘병’은 상호간에 공유 또는 교환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정보, 본 계약서의 내용 기타 관련내용 및 자료들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본 계약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또는 누설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및 보상)

1. ‘갑’, ‘을’, ‘병’ 중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한쪽의 원인제공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시에는, 위반 당사자가 그 시정을 요구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 당사자는 최고없이 본건 계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전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상호간 제공된 각종 권리는 원상회복된다. 다만 피해자는 본 계약관계에 의하여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등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제11조 (불가항력 등)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갑’, ‘을’, ‘병’ 3자의 합의하에 해결한다.

제12조 (관할법원)

‘갑’, ‘을’, ‘병’은 본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3조 (효력발생시기)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갑’, ‘을’, ‘병’ 3자는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3부 작성, 날인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한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감독 계약서로 계약할 경우 문제점

- √ 음저협 계약서의 7조(저작물 및 저작물의 2차적 이용)에 관한 조항은 영대위가 권고하는 저작권관련 조항과 충돌함
- √ 따라서, 음저협 계약서로 계약을 하면, 영화제작 때 지불한 음악관련 비용 외에 극장 상영, DVD 등 제작, 수출, TV(케이블, IP, 위성 등) 방송 등에 관해서도 건마다 음악사용에 관한 저작권료를 지출해야 함
- √ 영대위 권고 저작권 관련 조항을 삽입한 계약서로 음악감독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기존 영화제작을 하던 것처럼 영화 제작할 때 향후 권리에 대해 일괄 허락을 받고 계약을 한 것과 같음

영대위 권고 저작권관련 조항	음저협 계약서 저작권 조항
<p><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관련 조문></p> <p>1. (저작권 양도의 경우) '음악감독'이 본 계약에 따라 창작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은 '제작사'에게 귀속된다. '제작사'가 본 계약에 따라 '음악감독'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금'은 저작권 양도대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제작사'는 위 저작권 양도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p> <p>1. (이용 허락의 경우) '음악감독'이 본 계약에 따라 창작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음악감독'에게 귀속된다. '음악감독'은 국내외에 '제작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한 자가 음악저작물을 '본건 영화'에 삽입하고 '본건 영화'를 상영하거나 그 밖의 다양한 방식으로 유통시키는 것(인터넷, 지상파, IPTV 등을 통한 영화의 송신, VOD 서비스의 제공, DVD 제작 및 배포 등을 포함하</p>	<p>제7조 (저작물 및 저작물의 2차적 이용)</p> <p>① '병'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제공한 용역결과물(창작곡, 편곡음악, Master음반 등)에 대하여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가지는 경우, '갑' 또는 '을'에게 그 용역결과물이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건영화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극장에서 상영되거나 재상영되는 경우 2. TV(지상파TV, 케이블TV, IPTV 등 포함) 또는 위성방송을 통해 방영되는 경우 3. 본건영화가 비디오테이프, DVD, VCD, 뮤직비디오&DVD('본건영화'의 영상클립과 결합한 형태에 한함), 스틸, 홍보사진, 도서출판, 캐릭터, 속편 저작권, 수출 등을 포함하여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매체에 삽입되어 사용되는 경우 <p>② 위 1항 각 호의 사용으로 인해 공</p>

<p>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을 허락하며, 이를 위한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작사'가 본 계약에 따라 '음악감독'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금'은 본건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제작사'는 별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단, 해외지역에서 공연사용료 등을 '갑'(제작사 또는 투자사)이 아닌 제3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을(음악감독)'이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저작인격권 관련 조문></p> <p>1. '음악감독'은 영화의 특성상 '제작사'가 음악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영화 내에서 본건 음악저작물이 사용되는 방식이나 삽입되는 장면과 관련하여 저작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문제제기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p>	<p>연사용료, 방송사용료, 복제사용료 등의 저작재산권료가 발생하면 그 저작재산권료는 '병'에게 귀속되며 '갑' 또는 '을'은 '병'에게 그 권리의 포기 또는 이전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갑', '을', '병'이 협의하여 수익배분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다.</p> <p>③ 위 1항에서 사용을 승인한 권리를 제외하고 본건영화의 사용과 결합되지 않은 형태로 해당 용역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는 '병'에게 있다. 단, 본건영화에 삽입되거나, OST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의 저작인접권과 관련한 모든 판권(OST 음반 및 디지털 음원 등)의 관리 및 운용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갑' 또는 '을'이 담당하기로 하고 '병'은 수익을 배분받기로 한다.</p> <p>④ '갑' 또는 '을'은 '병'에게 제14조 제12항 2호의 음악저작물에 대해 저작물의 사용승인이나 저작물의 2차적 이용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책임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p>
--	---

• 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방송사용료 징수규정

제3장 방송 사용료

제16조(지상파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①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지역문화방송을 포함한다), (주)SBS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1%(음악사용료율) × 조정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방송사의 전년도 수신료(전년도 특수방송운영비와 EBS지원금을 공제한다) 및 광고수입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반 징수 경비, 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 지출 경비를 감산하여 3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비고2)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조정계수	0.46	0.52	0.58	0.65	0.72

비고3) 음악저작권 사용료 총지급액은 전년도 총지급액 대비 8.5% 이상 증가할 수 없다.

비고4) 지역문화방송의 경우 최종 산출된 음악사용료에서 5%를 감액한다.

②(주)케이엔엔,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오비에스경인티브이,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 (주)강원민방, (주)제주방송 등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1%(음악사용료율) × 0.72(조정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다만, (주)오비에스경인티브이의 조정계수는 비고2)와 같다.

비고1) 매출액이란 방송사의 전년도(방송초기연도와 그 익년도 및 방송종료연도에 한해 당해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수신료 및 광고수입을 합산한 금액에서 징수경비, 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 지출 경비를 감산하여 3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이 조에서 같다.)

비고2) (주)오비에스경인티브이의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조정계수	0.43	0.52	0.54

③교육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45/100(조정계수) × 0.35%(음악사용료율)

④기독교방송, 불교방송, 평화방송, 원음방송, 경기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46/100(조정계수) × 1.2%(음악사용료율)

다만, 경기방송의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조정계수	0.50	0.55	0.60

⑤교통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46/100(조정계수)×1.35%(음악사용료율)

⑥극동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46/100(조정계수)×0.7%(음악사용료율)

⑦국군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70/100(공제계수) × 1%(음악사용료율) × 0.72(조정계수)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전년도 TV 및 라디오 방송제작과 관련된 정부예산을 말한다.

비고2) 음악저작권 사용료 총지급액은 전년도 총지급액 대비 최저 8.5%이상 증가할 수 없다.

⑧아리랑FM 등 외국어 라디오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1.35%(음악사용료율)×조정계수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전년도 수신료 및 광고수입(협찬수입포함)을 합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등 제반 지출경비를 감안하여 3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아리랑 FM의 매출액은 전년도 정부지원금(방송통신발전기금) 중 FM 방송제작비를 말한다.

비고2)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조정계수	0.46	0.60	0.75	0.90	1.00

⑨국악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0.7%(음악사용료율) × 조정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일체의 전년도 정부지원금, 기금수입 및 광고수입 등을 말한다. 다만, 방송시설 운영비, 노후장비교체, 전국화 비용을 공제한다.

비고2)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조정계수	0.60	0.70	0.80	0.90	1.00

⑩YTN라디오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70/100 × 46/100 × 0.6%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전년도 방송협찬수입과 광고판매수입을 말한다.

제17조(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한 방송사용료) ①홈쇼핑채널(PP)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기준 매출액×40/100(공제계수)×조정계수×2.5%(음악사용료율)

비고1) 기준 매출액은 전년도 매출 총이익의 15%로 한다.

비고2) 공제계수 : 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 경비 지출을 감안한 비율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비고3)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조정계수	0.37	0.39	0.42

②홈쇼핑채널이외 방송채널사용사업(PP)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60/100(공제계수)×조정계수×음악사용료율

비고1) 매출액이란 전년도 수신료 수입 및 광고수입의 합산액을 말한다(이하 같다).

비고2) 음악채널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 도	2011년	2012년
조정계수	0.39	0.41

비고3) 오락채널, 교양종교채널, 스포츠채널, 보도채널, 기타채널 년도별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조정계수	0.52	0.55	0.59

비고4) 채널별 음악사용료율은 다음과 같다.

음악전문채널: 4%, 음악·버라이어티채널: 2.3%, 오락채널: 1.1%, 교양·종교채널: 1%, 스포츠채널: 0.6%, 보도채널: 0.5%, 기타 채널: 0.35%

제18조(종합유선방송(SO)에 대한 방송사용료) 종합유선방송(SO)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방송총수입×공제계수×45/100(조정계수)×0.5%(음악사용료율)×연도별 차등적용율

비고 1) 공제계수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 2) 연도별 차등적용율은 다음과 같다.

2002년도 75/100, 2003년도 85/100, 2004년도 이후 100/100

제19조(위성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위성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50/100 × 45/100(조정계수) × 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전년도 수신료수입 PPV채널수입, 광고 수입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비고2) 연도별 음악사용료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음악사용료율	0.55%	0.57%	0.7%	0.8%	1.0%

제19조의 2(IPTV 등에 대한 음악사용료) IPTV에 대한 음악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times 1.2%(음악사용료율) \times 0.47(조정계수) \times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당해연도 수신료수입(유료수신료 수입 포함), 광고수입(협찬수입 포함) 및 기타 본 서비스관련수입(지원금, 판권수입)의 합산액을 말한다.
단, 광고수입 중 광고대행수수료로 30%를 공제하기로 한다.

제19조의 3(지상파 DMB에 대한 방송사용료) 지상파 DMB에 대한 음악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times 45/100(조정계수) \times 1%(음악사용료율) \times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당해연도 광고수입을 말하며, 일반 징수경비 및 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지출 경비를 감안하여 3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중계유선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중계유선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수신료수입 \times 0.2%(음악사용료율)

제21조(음악유선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음악유선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수신료수입 \times 2%(음악사용료율)

제22조(이동방송서비스 등) 철도(전철, 기차)에서 제공되는 영상서비스에 대한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times 0.1%(음악사용료율) \times 연도별차등적용률

비고1) 매출액이란 이동방송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상업광고수입, 협찬광고수입 및 기타 방송과 관련한 수입의 합산액을 말한다.

비고2) 연도별차등적용률은 다음과 같다.

2002년도 50/100, 2003년도 60/100, 2004년도 70/100, 2005년도 85/100, 2006년도 100/100